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나*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마닐라에 위치한 대학으로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은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기숙사나 공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화장실이 변기 커버가 없었습니다. 휴지가 있는 화장실도 드물기 때문에 항상 휴지를 들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살 대학 주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인들에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운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종종 한국말로 인사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무시하면 됩니다. 필리핀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대학 주변이기 때문인지 가는 곳마다 경찰이 한명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덕분에 위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공바리오라는 야시장에서 종종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는 하니 소지품을 항상 주의하셔야합니다.</p>
수업	<p>수업은 일대일 수업 3개, 대그룹 수업 3개, 소그룹 수업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단어시험, 에세이 두 개, 위클리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어려울 것은 딱히 없습니다. 소그룹 수업 때 셋째 주 쯤 필리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어떻게 말해도 찜뭉같이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룹 수업에서는 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룹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그룹은 단합이 잘 되어 수업이 항상 재밌었습니다. 대그룹 중 토익 스피킹 수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수업 시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말그대로 토익 스피킹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대일 수업은 진도를 나감과 동시에 선생님과 가장 사담을 많이 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나이가 보편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어학연수가 끝나도 꾸준히 연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즐거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p>
Activity	<p>액티비티에는 마닐라 투어, 민도르 섬 여행, 따가이따이 화산섬, 팍상한 폭포 이렇게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p>

	<p>저는 이 중 마닐라 투어와 민도르 섬 여행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두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p> <p>마닐라 투어는 대그룹 친구들과 함께 하는 당일 여행으로 Rizal Park 외 두 군데의 관광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3가지 장소를 도는 것은 매우 금방 돌게 되고, 이 투어의 진정한 묘미는 3가지 장소를 모두 돈 후에 그룹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SM MOA에서 친구들과 기념품을 잔뜩 사고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푼 다음에 풍차우에서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닐라 투어는 단체 버스를 타고 도는 경우와 그룹끼리 벤을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비싸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벤을 추천합니다. 훨씬 편하고 빠르게 돌 수 있습니다.</p> <p>민도르 섬 여행은 2박3일로 진행이 됩니다. 요번엔 학교 측에서 돈을 지원해 줬는데 나중엔 어떨지 모르니 예상 경비를 말씀드리자면 1000~2000페소 언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섬에서 각종 물놀이를 즐기며 둘째날 밤에는 불꽃놀이를 합니다. 하얀 해변을 기대하고 가진 마시고 그냥 가서 물놀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는 흥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깎고 보면 생각보다 많이 깎아줍니다. 바나나보트와 같은 물놀이 기구를 잔뜩 타고 싶다고 하시면 섬에 가기 전에 각종 기구가 얼마인지 안내책자를 보여주니 참고해서 돈을 들고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거기 파는 생망고 슬러시가 정말 맛있습니다. 80페소였는데... 다른 필리핀 음식들도 한번 경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좀 짜긴 하지만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딱 좋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습하지 않고 적절한 온도입니다. 추위를 잘 탄다면 얇은 긴팔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딜가나 에어컨이 세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산은 챙겨가기보다는 SM north나 하이퍼마켓에가서 하나 사서 한달 쓰고 버리세요. 챙겨오면 한국갈 때 짐됩니다.</p>
안전	<p>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경찰이 패스트푸드점 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러 나가거나 해도 저희의 행동반경 안에는 경찰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시장도 처음에나 10명씩 다녔지 단 둘이 망고를 사러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지난 학기와 달리 새로운 기숙사를 쓴 것 같은데 더 시설이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인실이지만 방이 엄청 좁습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안되서</p>

	그런가 방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뭐 한달 살기엔 나쁘지 않지만...간혹 복도에서 도마뱀이 보이긴 해도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도 작아서 처음엔 어떻게 여기서 샤워를 하지 싶어도 다 하게 됩니다. 숙소 시설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O)기타() 식당 밥은 나쁘지 않습니다. 주방장님이 김치찌개를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기숙사 옆 줄리비나 세븐일레븐 옆 작은 피자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간혹 고기, 짜장면 같은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좀 멀지만 SM north 주변에 한국 식당이 많은 골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삼겹살, 갈비, 짜장면, 짬뽕 다있습니다.
교통	하이퍼마켓을 다닐 때는 차를 신청하는 법도 있지만 지프니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쯤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택시는 우버택시를 추천합니다. 콜비를 따로 받지 않고 제일 편합니다. 카카오택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필리핀은 웬만하면 항상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계획한 일정이 있다면 그것보다 항상 앞서 움직이는 걸 추천합니다. 도로상황이 어떻게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경비	450000	달러로 환전해 현지에서 폐소화
합계	114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주말에 어디를 놀러갈지 계획을 미리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하려니 귀찮더라고요. 쇼핑몰로는 SM MOA, AURA 등이 있고, 이름은 모르지만 무슨 놀이공원, 동물원, 보니파시오, 씨마켓? 등으로 다양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택시로 1시간정도는 잡아야 하는 거리입니다. 더 멀리여도 괜찮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친구는 카지노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은 맛집들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잭스버거를 나름 맛있게 먹었습니다. Maxs 레스토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갔지만 바이킹 뷔페는 꼭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p> <p>파견 전에 선생님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질 때 되면 아쉽고, 그렇다고</p>

필리핀 선물을 주기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걸로 준비하면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마사지 받으세요. 단체로 연결해주는 마사지도 나쁘지 않지만 지프니를 타고 좀 나가서 맥아더 가는 길에 있는 마사지샵이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싸게 마사지 많이 받고 오세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4주간 정말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대그룹에서 다른 학교 마음 맞는 수많은 친구들을 알게 된것도 좋고, 선생님들과도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젠 영어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주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다보니 영어권 나라에 가서 굶어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스스로 단어도 찾아보고 문장이 맞는지도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다보니 영어의 필요성이 더 와 닿았습니다. 경험을 해봐야 안다는 것이 뭔지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핀에서 하던 것처럼 꾸준히 단어 공부를 하고 토익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언젠가 미래에 만나게 됐을 때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싶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해외 여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가 첫 해외여행인데 미래의 해외여행들에 대한 근심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4주간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노력해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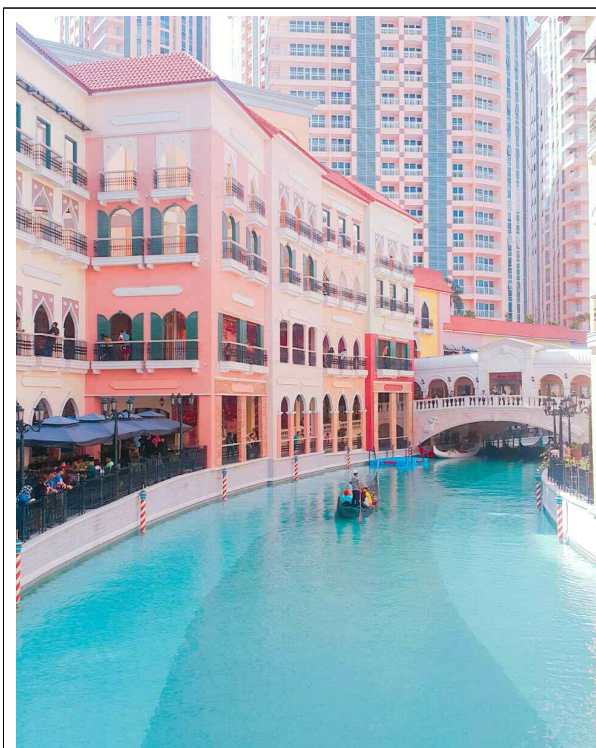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마닐라투어 Rizal Park



동갑 친구들 in 줄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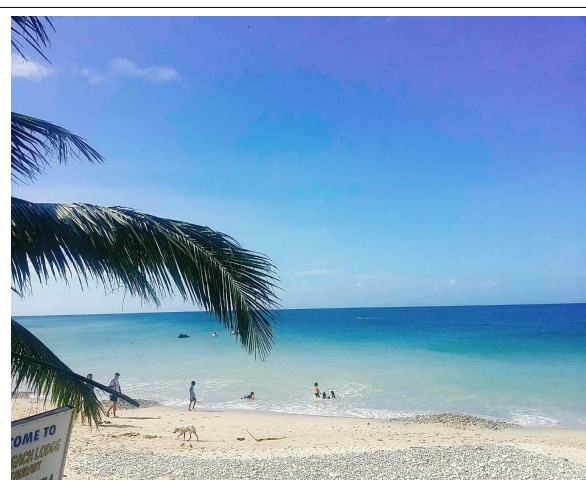
보니파시오



마닐라 투어



T.Brille과 1대1 수업



민도르섬